

태고종 집행부 하루만에 청사서 퇴거

도산 스님 “해결 위해 대화” VS 비대위 “폭력집단과 대화 안해”

폭력 진압 논란을 일으키며 2월 11일 새벽 총무원 청사를 재탈환한 태고종 도산 총무원장 집행부가 다음날 퇴거하며 원만한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요청한데 대해, 비대위 총무원장 권한대행 종연 스님은 “폭력 집단을 대화상대로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거부해 내용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태고종 집행부는 2월 12일 태고종 총무원사서 퇴거하며 도산 스님 명의의 성명을 통해 “비대위가 불법 점거한 총무원사를 원상회복했다”며 “종단 안정을 위해 퇴거하고 공실로 두며, 비대위와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산 스님은 “집행부는 총무원사 인근 임시사무실서 중무행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비대위 측도

총무원사에 진입하지 말아야 하며, 서로 법적대응과 소모적 논쟁없이 평화적인 대화를 이어가자”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태고종 비대위측은 12일 오후 반박 입장문을 발표했다. “집행부가 폭력적인 청사진입을 한 자정쯤 용역강패 8명이 청사를 나오다 경찰에 연행돼 조사를 받았다”며 “기자회견장에서 도산 원장이 청년회원들이었다는 거짓말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대위 총무원장 권한대행 종연 스님은 “도산스님은 폭력 점거사태의 파장이 일파만파 퍼지자 위장 대화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도산스님은 즉각 총무원장직을 자진 사퇴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주일 기자**

한국불교 · 종교사회 현안 논한다

불교 · 종교 현실 진단하는 논단 · 포럼 잇달아 개최

속(俗)이 성(聖)을 격정하는 시대, 한국불교와 종교사회의 문제점과 대안을 분석하는 논단과 포럼이 잇달아 개최된다.

불교 대표 학술 기관지 <불교평론>은 열린논단 60회 기념해 ‘한국불교 정말 괜찮은가’를 주제로 연속기획을 개최한다.

2~4월까지 3차례로 진행되는 이번 연속 논단은 수행과 포교, 사회적 실천을 주제로 진행된다. 오는 2월 26일 열리는 논단에서는 조명제 신라대 교수가 ‘수행, 정말 잘하고 있는가’를, 3월 19일 논단에서는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가 ‘포교, 정말 잘하고 있는가’를, 4월 16일에는 조성택 고려대 교수가 ‘사회적 역할, 정말 잘하고 있는가’를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발제 이후에는 참가자들의 자유 토론이 진행돼 한국불교의 나아갈 길을 모색한다.

불교평론은 “2월 논단 주제인 ‘수행, 정말 잘하고 있는가’에서는 한국불교의 특색이자 자랑인 ‘수행’이 과연 불교의 목적인 탐진치의 지멸과 열반의 성취를 지향하고

불교평론 열린 논단
60회 맞아 3회 연속 토론
‘한국불교, 괜찮은가’ 주제
수행 · 포교 · 실천 분야 점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면서 “이를 통해 한국불교가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의 기초를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종교 · 인문공동체인 화쟁문화아카데미(대표 조성택)는 한국종교 전반에 대한 성

찰을 모색하는 ‘종교포럼’을 개최한다.

“종교를 걱정하는 불교도와 그리스도인의 대화 : 경계너머, 지금여기”를 주제로 열리는 종교포럼은 2월 28일 조성택 교수의 ‘한국불교의 깨달음 지상주의’ 발제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매달 한 차례씩 총 9

화쟁문화아카데미
불교 · 가톨릭 · 개신교 현실
비교 · 진단하는 포럼 개최
2월~11월까지 9회 진행

회 진행된다. 이어 김진호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연구실장이 ‘개신교의 배타주의와 타자의 악마화’(3월 28일)를, 김근수 해방신학연구소장이 ‘가톨릭의 권위주의(4월 25일)’를 발

표한다. 이후에도 매월 조성택, 김진호, 김근수가 돌아가며 각각의 종교 현실과 이 때문에 빚어지는 시민사회 내 부작용을 발제하고 관련 문제를 토론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화쟁문화아카데미를 이끄는 조성택 교수는 “지금 한국 사회의 종교는 종교가 사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종교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평화와 힐링을 마케팅 상품으로 내세우는 한국 주류종교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나아가 ‘종교란 근본적으로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사간동 화쟁문화아카데미에서 열리는 포럼은 2월에는 오후 1~5시에 열리는 3월 3일부터는 오전 10시 시작해 3시간씩 진행될 예정이다. 방청객에게도 토론 참여 기회를 주며 전체 포럼 내용은 책과 영상 콘텐츠로도 제작된다. **신성민 기자**

동국대 총장선거 내분 격화

보광 스님 징계 예고에 11일 이사회 무산

제18대 동국대 총장 선출을 둘러싼 내분이 격화되고 있다.

총장 후보 보광 스님의 논문표절 논란에 이어 이사회에 징계안이 상정 예고되자 2월 11일 일부 이사들의 보이콧으로 이사회가 무산됐다.

동국대는 이날 보광 스님의 논문표절 건 징계를 논의하기 위한 이사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이사 13명 중 9명이 불참해 무산됐다.

이날 이사회에 불참한 이사들은 “연구윤리진실성위가 재심의 기회도 주지 않고 비밀업수 조항도 위배하는 등 적법 절차를 무시했다”며 “이사장 해임의 건을 상정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사장인 정연 스님은 이날 “지난해 12월 있었던 일은 명백히 총장 선출에 대한 종단의 외압이고 위협이었다. 상

식을 뛰어넘는 부당한 권력행사”라며 “종단이 학교 구성원들과 대중 앞에서 분명히 사과하고 참회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실마리”라고 말했다.

보광 스님은 이에 대해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신이 쓴 논문의 연구부정행위 조사결과와 관련해 “교내 · 외 일부세력의 언론플레이며 악의적 논문검증”이라며 “어려움을 극복해 총장후보자로 끝까지 헌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총학생회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학생들은 같은날 동국대 팔정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단의 선거개입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학교 자주성이 훼손된 데 이어 여러 이권의 개입으로 사건의 본질마저 흐려지고 있다”며 “민주적인 총장선거를 다시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조계종의 총장 선거 개입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노덕현 기자**

“무엇을 바꿀까”... ‘알맹이’ 빠진 끝장토론

영담 · 도법 스님 나선 대중공사
구체적 의제 없어 ‘중구난방’
토론 보다 攻守 일관 청문회



대한불교청년회는 2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명장에서 ‘조계종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주제로 대중공사를 개최했다.

조계종 총책모임 삼화도량 회장 영담 스님과 조계종 자성과쇄선결사추진본부장 도법 스님의 끝장토론으로 이목이 집중됐던 대한불교청년회 주최 대중공사가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하고 마무리됐다.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전준호)는 2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명장에서 ‘조계종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주제로 대중공사를 개최했다.

이날 대중공사에는 영담 스님과 김영국 연경불교정책연구소장, 도법 스님과 정웅기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이 각각 한몫을 이뤄 현재 불교계 현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이뤄졌다.

하지만 이날 대중공사는 ‘무엇을 바꿀 것인가’가 논의되기보다 공격과 수비행태로 진행돼 토론보다는 청문회에 가까웠다.

김영국 소장은 종단 화쟁위원회, 자성과쇄선결사추진본부 성과의 공과부터 도법 스님의 인드라마생명공동체를 일부 사찰에서 지원하는 문제, 친환경공양미 사업까지 질의하며 도덕성 문제를 거론했다. 이에 도법 스님과 정웅기 위원장은 이를 일일이 반박하고 해명하는 데에 토론의 초점이 맞춰졌다. 사회자로 나선 성태용 건국대 교수가 참가 패널의 발언을 제지하며 서로 간의 언성이 높아지는 모습도 왕왕

발생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부 청중은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청중으로 참가한 백영도 문은사 주지 부명 스님은 “주제가 ‘조계종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인데 지금 보면 아무 것도 안 바뀔 것 같다”면서 “영화를 봐도 짧은 시간 내에 유쾌, 슬픔 등을 모두 담아낸다. 기대를 했는데 주최 측이 대중을 기만한 것 같다”고 성토했다.

이어 “내용부터 준비가 안됐다. 무엇이 문제가 있다면 합의를 가지고 논의를 하는 것이 대중공사인데 사회자가 주제를 만들려고 하니 회의가 진행되지 않는다”면서 “이 자리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도 종단을 바꿀 수 있는 정치가 마련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부명 스님은 “종단 대부분의 스님들이 종단과 국가, 대중에 관심없이 쓸쓸히 삶을 마감해야 한다”면서 “종단 문제에 대해서는 선배 스님들이 더 잘 알고 있다. 회망을 주는 말씀을 해달라”고 질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토론 가운데 영담 스님과 도법 스

님, 재가 패널들은 종단 내부 문제가 지중하다는 것은 공감했다. 대안으로는 각기 다른 원론적 방안을 내놨다. 영담 스님은 출가 정신 회복을 주장했으며, 도법 스님은 대중공의의 장(場)을 확대하자고 의견을 제시했다.

영담 스님은 삭도를 내보이며 “초발심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종단은 바로 갈 수 없다. 내부가 제대로 해결 안됐는데 외부로 가서는 아무 소용없다. 말보다는 실천이 필요하다”면서 ‘초발심 회복 운동’을 제안했다.

이어 “조계종이 변화하려면 부처님만 놔두고 전체가 바뀌어야 한다. 개개인이 각자의 뼈를 깎는 아픔으로 결과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법 스님은 “종단이 쉽게 바뀔 것 같으면 고생을 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혜와 마음을 모아낼 대중공의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변화의 불씨를 지속적으로 지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성민 기자**

종단 미등록사설사람
‘대한불교조계종’ 불허
창원지법, 명칭 사용금지 판결

조계종에 등록하지 않은 사설사람은 앞으로 ‘대한불교조계종’이라는 명칭과 삼보륜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민사부는 2월 11일 조계종이 지난해 경남 사천 소재 B 사찰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종단에서 업무 표장으로 등록된 ‘대한불교조계종’ 명칭과 문장 등을 간판과 현수막, 홈페이지, 홍보물 등에 사용하지 말 것과 기 사용 건에 대한 폐기할 것’을 고시했다.

이번 결정은 미등록 사설사람의 종단 등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조계종은 미등록사설사람을 약 400여 곳으로 파악하고 있다. 호법부는 이번 결정에 따라 현재 미등록 사설사람의 종단 등록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호법부 관계자는 “미등록 사설사람의 종단 등록 유도가 최우선”이라면서 “미등록 사설사람이 종단 명칭을 계속해서 사용할 경우 종법상 징계는 물론 사회법을 통한 대응 등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계종 법무전문위원 이정미 변호사는 “이번 결정은 상표권 등록 이후 종단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법임을 인정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미등록 사설사람의 종단등록을 유도하고 종단 명칭의 무단 사용을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덕송총림 수덕사 주지 후보 정묵 스님

7일 임피서 만장일치로 선출

덕송총림 수덕사 신임 주지 후보에 前 중앙총회 부의장 정묵 스님(사진)이 선출됐다.

덕송총림 수덕사는 2월 7일 31차 임회를 열고 지은 스님 후임 주지 후보에 정묵 스님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수덕사는 정묵 스님의 주지 임명을 품신하게 되며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임명하게 된다. 신임 주지 임기는 오는 3월 18일에 시작된다.



정묵 스님은 법장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6년 수덕사에서 우송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9년 해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12, 13, 14, 15대 중앙총회위원과 수석부장을 역임했다. 현재 서울 호암사 회주이다. **신성민 기자**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얇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전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됨,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열침의효능 헬스벨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불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생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마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 발이차서냉
*오심건,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중,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현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심건조기,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